

20년 장기 집권 알제리 대통령, 퇴진 요구에 '백기'



북아프리카 알제리 압델라지즈 부테플리카 대통령(82·사진)이 20년 장기집권을 끝내고 이달 안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 '5선 포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퇴진 요구가 계속된 데 이어 군부까지 가세하자 백기를 들었다.

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알제리 대통령실은 전날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는 오는 28일 이전에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누레딘 베두이 현 총리가 이끄는 과도정부 구성안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알제리 시민들은 지난 2월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5선 도전'이 알려진 뒤부터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여왔다. 높은 청년실업률에 고통받는 젊은이들이 시위를 주도했다.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이달 18일로 예정됐던 선거도 미뤘다. 올해 말까지 새 헌법을 만드는 등 국가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시위대는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1999년 첫 취임한 후 정부군과 이슬람 무장세력 간 내전을 수습하기 위해 국민화합정책을 펼치며 높은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장기집권이 가져온 부패 논란에 국민들은 등을 돌렸다. 2013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공식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점도 신뢰를 떨어뜨렸다.

여기에 더해 정권에 협력해온 군부까지 퇴진을 압박하자 더 이상 대통령 자리에 머무를 수 없게 됐다.

프랑스에 한국계 장관 또 탄생



프랑스에서 또 한 명의 한국계 장관이 탄생했다.

1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디지털 경제 담당 국가비서(장관급)에 한국계인 세드리크 오(37·한국이름 오영택)를 발탁했다.

세드리크 오는 개각 발표 후 트위터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감격스럽다. 대통령과 총리의 신뢰에 감사한다."면서 프랑스의 기술과 융합, 디지털화를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세드리크 오는 2006년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후보의

사회당 대선 경선 팀에 참여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마크롱이 집권한 2017년부터는 엘리제궁에 입성해 디지털 경제 부문의 정책 보좌관으로 일하던 중 이번에 장관으로 발탁됐다.

세드리크 오의 동생인 텔핀 오(34·한국이름 오수현)도 집권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 소속으로 파리 16구를 지역구로 둔 하원의원이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방불했을 때 마크롱 대통령은 엘리제궁 만찬에서 문 대통령에게 세드리크와 텔핀 남매를 헤드테이블로 불러 직접 소개해주기도 했다.

세드리크 오는 1982년 프랑스에서 유학하던 한국인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태어나 프랑스 리옹에서 자랐다. 그의 아버지는 오영석 전 KAIST 초빙교수(71)이다.

앞서 입각한 한국계 장관으로는 플뢰르 펠르랭(한국명 김종숙)이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13년 입각해 디지털경제, 통상담당 장관을 거쳐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고, 장뱅상 플라세(한국명 권오복) 역시 올랑드 대통령 재임 때 국가개혁 장관을 지낸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프랑스로 입양된 경우이다.

싱가포르, '가짜 뉴스 방지법' 추진

싱가포르가 정부 규제를 위반한 기사를 당국이 삭제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가짜 뉴스 방지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싱가포르에 아시아 본사를 둔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 IT 기업들도 법 시행에 협조하라는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지달난 29일 새로운 법이 증가하는 온라인 역정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짜 뉴스 방지법은 작년 싱가포르 국회가 가짜 뉴스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고, 정부가 '악의적인 정보 캠페인의 타겟'이라고 결론 내린 일에 이은 것이다.

리 총리는 이 법은 언론에 가짜 뉴스를 정정하도록 요

구하고 수정사항이나 온라인 거짓 정보에 대한 경고도 띄워 독자나 시청자가 모든 면을 보고 어떤 사안에 대해 스스로 결정 내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극단적이고 긴급한 경우, 이 법안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온라인 뉴스 공급자가 가짜 뉴스를 삭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디언은 이미 언론 환경을 엄격히 통제하는 권위주의적인 싱가포르 정부가 새 법을 통해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진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는 국제 언론자유 감시단체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180개 국가 중 151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RSF는 싱가포르를 언론 검열이 만연하며 관계 당국이 여러 사안들에 대해 '레드 라인'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타운뉴스 업소록

“리스팅 신청하세요!”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Fax: _____

업소명(한글): _____ 주소: _____

(영문):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업종: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Tel: 714.530.1367 / Fax: 714.530.6473

11501 Brookhurst St. #202., Garden Grove, CA 92840

townnewsusa.com

